Wofund @ chollian.net 17.6

유산 1% 기부 운동

박영숙 본회집행위원장

최근에 우리나라 로터리클럽에서 유산 1% 기부 운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첫 번째 약정자의 기부금이 50억 원이었다고 한다. 얼마 전에 아름다운 재단의 유산 1% 기부 운동의 일번 타자는 정신대 할머니로서 그 금액은 그가 남긴 유산 2천만 원의 1%인 20만원 이였다.

유산나누기 운동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이 하는 기부형태가 아니다. 누구나가 가졌던 것의 1%를 세상의 좋은 일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남겨주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서 보면 각 모금기관의 기부금 비율 중 유산기증이 차지하는 몫이 크다. 그 중의 상당부분은 현금이 아니라 현품(예술품, 부동산등)들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경매코너가 상설되어있는 것은 이런 유류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자손에게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공익을 위해 유산을 남기는 기부행위가 일반화되어있는 영국에서는 유산기부운동을 전담하는 유산기부판촉원(Legacy Marketing Officer)이라는 전문직이 있을 정도이다. 전문적인 판촉원이 활동하기에 이른 것은 그 부문의 기부행위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산남기기운동을 원활하게 하여주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미국의 한 지역사회 재단에서는 유산기증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람들의 유산과 관련된 자문과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통해 사람들이 공익재단에 유산을 기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국여성재단에서도 유산 1% 나누기 운동을 하고 있다. 유산 1억 원에 대한 백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미리 약속해 두는 운동이다. 누구든 의지만 있으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유산을 남기기로 약정하는 법적 절차가 복잡한 것이 이 운동의 걸림돌이다.

지나치게 번거로운 절차는 사람들의 선한 행위를 위축시킨다. 특히 소액유산기증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얼마 안 되는 기부 금액에 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부담스러워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나눔의 분위기는 이들이 함께 하는데서 확산되고 그리고 따뜻한 세상은 만들어진다. 여성 재단은 유산 1% 기부 운동 전개와 병행해서 유산기부에 불편을 덜기 위한 법개정운동을 추진해야 할 것 같다.

유산기증운동이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운동이다. 이 운동을 하나의 확실한 기부문화로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 운동의 판촉을 촉진할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의 동참을 희망하는 선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전화로 연락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기를....